

유머의 레이어- 우정수

남웅(미술평론)

우정수 작가의 유리창 드로잉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2017년 개인전 《패턴즈》에서 전시장 유리창에 설치하고 <썬셋 라이엇(Sunset Riot)>(2018)에 크기를 확장한 유리창 드로잉은 유리의 물리적이고 은유적인 투명한 질서에 불투명을 개입시킨다. 유리 위에 부착한 형상은 빛이 투과한 유리창 바닥에 그림자를 아른거리게 한다. 허공에 맴돌던 인물들은 무게와 밀도가 없다. 이들에게 발 디딜 수 있는 세계란 주어지지 않는다. 아니, 존재하지 않음을 표명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낸다. 차라리 형상은 감춘 것 없는 투명한 베일이라 부르는 편이 적확해 보인다. 이미지의 출몰 자체가 내용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유리는 특성상 안과 밖을 구획하는 동시에 둘을 연결시킨다. 사이공간적 속성을 갖는 투명한 벽은 상업공간에 매혹적인 이미지와 메시지로 포장되거나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이 빛의 투과력과 색상의 효과를 조작해 성스럽고 압도적인 분위기로 연출된다. 안과 밖을 나누는 장치는 투명한 까닭에 끊임없이 서로를 미혹한다. 그 위로 작가는 얼굴을 가리고 창밖과 안을 위협하는 여성 무리의 모습들을, 춤추는 해골들과 이들의 위협에 겁먹은 인물들을, 이상한 몸짓의 사람들을 그려 넣는다. 규범의 경계와 삶과 죽음 사이의 상상적 이미지들은 안과 밖, 이승과 저승, 현세와 내세를 그리기보다 그 사이 경계 자체를 가리킨다. 일련의 내용들이 선과 선으로 연결된 윤곽만 구성한 채 살들이 밀도 있게 들어가야 할 법한 면의 자리에 빛을 투과한다. 선들의 신체라고 부를 수 있을 형상들은 내용과 형식상의 접점 위에서 경계의 공터를, 우리가 함의한 존재론적 공백을, 공백으로서 존재를 징후적으로 드러낸다.

이렇듯 그의 화면 위에는 선들이 도드라졌다. 드로잉의 선들로 점철되는 그림들은 판화를 연상시킬 만큼 일종의 각인 효과를 남긴다. 다만 그의 손작업은 판화가 압력을 통해 상을 입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벼운 완급조절을 통해 화면을 스친다. 하여 그림의 풍경과 형상들은 비교적 가볍고 다채로운 역동을 드러낸다. 형상을 남기는 예의 필치는 동시에 형상의 확정성을 지운다. 그것은 형상이나 비형상 중 어느 하나를 가리키기보다 그 사이 판단이 유보된 차원에 가깝다.

얇은 레이어와 레이어를 평면에 포개어놓고 표면에 선을 그어 텍스처와 형상을 부여하는 공정 위에 선들은 크고 작은 화면 위를 지나가고 캔버스 위를 활보하며 화면 가득 소용돌이친다. 선을 긋는 작가의 손은 유리창 위를 미끄러지다가 하면 이내 사람의 피부 위에도 형상을 남긴다. 작가가 작업의 몇몇 기호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문신한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관객은 심층의 색면이 피하조직과 일종의 동형성을 갖는다고 연상할 수 있다. 그 위로 표면 위의 선들은 심층을 '깊이의 효과'로 각하한다. 그것은 앙상한 형상을 지탱하는 세계의 깊이라기보다 앙상함의 질서로 포박된 깊이의 '레이어'에 가까운 셈이다.

그의 연작에서 보이는 반복과 변주는 유리창 그림이 필연적으로 갖는 일시성과 짝을 이룬다. 유리창의 테이프는 금세 떼어지는 그림이며 동시에 떼어지기 위한 그림이기도 하다. 전시 기간은 허용된 출몰의 시간으로 작동한다. 형상은 고정되어 있지만 언제고 떨어져야 하기에 기념비가 될 수 없다. 일시적 표상은 그의 타투 작업과 한 번 더 비교할 수 있다. 유리 표면에 일시적으로 접촉된 그림과 달리 반영구적으로 남는 문신은 대신 시들어가는 피부 위에 끈질기게 남는다. 재기발랄한 쇠락과 그로부터 영구적인 반 기념비적 이미지를 남기는 작업들은 영속성과 그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며, 그사이에 결국 지워지지 않는 잔여물 같은 형상을 남긴다. 사이를 버려내는 작업은 영속성에 회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에 대한 회의를 영구적으로 남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지함을 증발시킨 장난기 어린 형상들은 흐물거리며 표면을 미끄러진다. 그것은 빠른 플로우 위에 명멸하는 도시 존재들 사이에 잠깐의 부동자세를 취한다. 삶도 죽음도 아닌 상상된 경계 자체의 출몰은 안과 바깥 사이를 단절함과 동시에 연결을 지시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부여되기보다 의미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착된다.

일시적 드로잉과 반영구적 각인 사이 간격은 2010년 <산책자들> 시리즈에서 최근의 <프로타고니스트>로 연결되는 시리즈를 관통하는 성격이기도 하다. 고정된 화면 위에 빠른 필치의 선으로 남겨진 불완전하고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형상들은 동세를 강화함으로써 고정됨에 저항하는가 하면 동세와 고정된 배경 사이에 머무름으로써 균열 낸다. <산책자들>의 화면 위로 날아다니는 책들이 화면을 어지럽힌다. 책들은 궤적을 남기고 한 무리의 구름을 만든다. 날아다니는 책들은 한장 한장 드로잉적인 패턴이 되고, 패턴은 다른 형상들로 이어진다. 문자와 언어와 학문의 장대한 무게를 생략한 가운데 가벼운 선들이 책과 원숭이를 한 화면에 압착한 장면은 일종의 우스꽝스럽고 허탈한 여운을 남긴다. 그것은 유한한 존재로서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야 하는 이카루스적 인간이 뒤돌아보며 마주하는 혼란과 이상적 미래로부터 함몰되고 파괴되는 과거를 연상시킨다. 또는 예의 허탈함이 인간 이전 지성을 갖추기 시작한 어떤 동물의 모습으로 희극적 반전을 하는 것은 아닌가를 묻게 한다.

화면 위의 역동은 <프로타고니스트>에 이르러 폭풍의 파도 한가운데 있는 배들로 옮겨간다. 평면 위에 물결치는 선들은 배를 삼키려 들지만 배는 그 속에

들어가는지 그로부터 나타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차라리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범람하는 선들의 집적으로 유희하는 모습이다.

수많은 필치가 파도와 폭풍을 범람시키는 평면작업은 동시에 재난을 통제하고 변위한다. 바람과 폭풍과 파도와 심지어 작가가 채워 넣는 물감의 얼룩과 붓의 스트로크에 휩쓸리는 모습 속에서 작가는 화면의 배치와 균형을, 이질적인 소재의 개입과 색의 변주를 실험한다. 작가는 화면 위에 선들을 구사하며 폭풍을 만들고 재난을 일으키며 기적의 순간들을 만들면서도 엉뚱한 형상을 집어넣는가 하면 집체 같은 파도와 소용돌이 위에 스마일 버튼을 띄워 그간의 재난들을 일개 레이어로 치환한다. 그것은 일시성과 반영구성, 시간에 대한 필연적인 무능감과 화면 위의 전능함 사이에서 개구진 움직임을 놓지 않는 작가의 건조한 유머이기도 하다. 때로 그것은 재난에 가까운 생존으로부터, 잔인한 투명성으로부터 기선을 유지하며 유머를 잃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 같다.